**목 차**

|  |
| --- |
| **중 국** |

◦ 흑룡강성 중점 투자사업에 관한 소개(흑룡강성) 2

◦ 제4회 중국 하남성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개최(하남성) 7

◦ 11.5 경제개발계획 및 동북아협력 전망(산동성) 10

|  |
| --- |
| **대한민국** |

◦ 2006 경상남도의 전시회 개최계획 소개(경상남도)19

|  |
| --- |
| **러 시 아** |

◦ 러시아ㆍ중국간의 특별경제구역 창설 제의(아무르주)20

◦ 이르쿠츠크와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전략의 관계(이르쿠츠크주)24

**흑룡강성 중점 투자사업에 관한 소개**

흑룡강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조이력(趙爾力)부주임

존경하는 최영조 경제통상실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이번 2005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에 흑룡강성 대표단으로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흑룡강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을 대표하여 이번 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영조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이번 회의 코디네이터 단체인 경상북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호혜 평등과 공동번영의 원칙에 기초하여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경제무역 협력을 위해 많은 유익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은 줄곧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중점 사업화하여 러시아, 일본, 한국이 흑룡강성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고 교역액도 흑룡강성의 대외무역 수출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는 「동북지역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이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흑룡강성의 발전에 천재일우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으며 흑룡강성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잘 이용하여 기계장비,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의약, 임업 등 6대 기지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흑룡강성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식 투자, 지분 보유, 매매 등의 방식을 통한 흑룡강성 국유기업 재산권 제도 개혁의 참여**

금년들어 흑룡강성은 모두 106개 국유기업의 개혁을 진행하여 그 중에는 56개 대형 및 중형 공업기업과 50개 비공업기업 등이며 산업분야는 장비, 의약, 야금, 석유화학, 에너지, 임산물가공, 건축, 교통, 관광, 금융, 대외무역에 이릅니다. 흑룡강성은 국외 투자자들의 국유기업 주식 투자, 지분 보유 및 매매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둘째, 흑룡강성 현대 농업경영 분야의 투자를 통한 생산, 가공, 판매 등의 많은 영역에서 심도있는 개발 추진**

흑룡강성의 평균 경지면적과 토지 예비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넓고 년평균 식량생산량은 300억kg이상에 달하며, 상품식량 생산량은 180억kg이상이고 젖소 141만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유생산량은 375만 톤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주산지이자 상품식량기지이며 목축업 대성(大省)입니다.

많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흑룡강성에 와서 대규모의 현대식 농장을 건설하여 식량 및 기타 농산품, 임산품, 축산품 생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농산품 특수가공을 토대로 한 식품, 화학과 의약공업 기업이 창업할 수 있으며 또한 농업 생산자료 경영과 우량종의 배양, 농업생산기술의 상품화 보급 및 농산품 경영과 판매 등의 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 여행업 협력사업의 강화** 흑룡강성은 숲, 대초원, 습지, 호수, 대설원, 국경을 경계로 하는 큰 강으로 국내외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겨울에는 하얼빈의 “빙설대세계(氷雪大世界)”라는 축제로 유명하며 또한 흑룡강성에는 아시아 최대 야뿌리 스키장이 있으며, 여름에는 세계 3대 고산(高山) 언지호의 하나인 경박호(鏡泊湖)와 세계 3대 냉천 중 하나인 오대련지(五大連池), 단정학(丹頂鶴)의 고향인 찰룡(扎龍)보호구, 중국-러시아 양 국 국경에 위치한 흥개호(興凱湖), 피서와 레져 지역인 이춘(伊春)산림 공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은 내년 국내외 관광객이 10%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4년에는 40,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흑룡강성은 국외 관련기업과 기관에서 더 많은 관광과 여행업 관계 대표단을 조직하여 흑룡강성 현지를 방문하여 북국(北國)의 경관을 흠뻑 만끽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여행사 지점 및 기타 관련 중개 기구 설치, 흑룡강성과 각 국가간의 상호 관광 노선 개발, 관광지와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기대해 봅니다.

**넷째, 각 사업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자원형 도시 경제로의 전환**

자원형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능력 개발 및 노후공업기지 진흥정책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흑룡강성은 자원형 도시경제전환의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경(大慶)은 향후 윤활유, 천연가스, 화학공업 및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특수가공업 등 화학 공업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여 4대 석탄 도시의 산업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하여 화력발전, 석탄 관련 화학공업, 석탄의 석유화, 석탄의 가스 전환 및 종합개발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춘(伊春), 대흥안령(大興安岭) 산림구역은 장차 원목을 자재로 하는 가구, 합판, 펄프, 목제공예품 등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흑룡강성 자원형 도시 경제로의 전환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으며 대경(大慶)과 이춘(伊春)을 자원형 도시라는 국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흑룡강성은 해외 기업인들이 이러한 유리한 시기를 잘 활용하여 흑룡강성 석탄 개발 투자 및 화력 발전소, 석탄, 석유화학공업과 목제품 가공기업 창업을 환영합니다.

**다섯째, 현대 물류업발전 및 중개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전개**

흑룡강성은 중국의 중요 상품식량, 에너지, 원자재, 장비제조와 중화학공업기지이며 화물 운수량도 많으며 또한 동북아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흑룡강성은 국외물류기업이 흑룡강성에서의 지점 개설 및 물류운송, 보관, 배송의 현대식물류센터의 건설을 환영합니다.

현재 흑룡강성 정부는 믿을 수 있는 흑룡강성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외 변호사, 심사, 회계, 고문, 담보, 연구개발과 기획 등 중개조직과 금융기구의 시장진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흑룡강성은 중국정부가 제출한 과학발전관의 요구에 따라 하얼빈, 대경, 치치하얼 지역 내에 900여㎢ 미개발토지에 공업을 집중시켜 장차 하얼빈-대경-치치하얼 공업벨트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알카리성 토양 지역 등 미개발용지 251㎢를 개발하여 국외 투자자가 흑룡강성 노후공업기지 진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우수한 투자무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년간 94.2㎢의 시범구역을 건설하여 668억원RMB가 투자될 예정이며 그 중 인프라시설 건설에 198억원RMB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 601㎢에 딜하는 용지를 개발하여 장비제조, 석유화학, 식품, 의약, 하이테크 신기술과 현대물류 등 특수 산업군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921㎢에 달하는 용지를 개발하고 집중 산업군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생산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과학기술로 뒷받침하여 친환경 공업벨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하얼빈-대경-치치하얼 공업 벨트 건설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가가 실시하는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 정책의 성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흑룡강성 정부는 현재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중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흑룡강성은 중국 정부가 동북지역 노후공업 기지 진흥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동북아지역 위치한 국가의 생활수준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협력에 공동번영이란 희망은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현재 흑룡강성의 발전이 바야흐로 무르익고 있으며, 투자협력과 비즈니스 기회도 무한하기 때문에 흑룡강성은 투자자 한분 한분에게 우정과 발전으로써 보답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4회 중국 하남성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개최**

하남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장광민(章光敏) 부처장

신사, 숙녀 내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하남성을 대표하여 이번 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이번 회의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경상북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이며, 경제글로벌화 시대이자 문화교류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남성 인민과 동북아 각 국의 지역민들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우의를 부단히 증진하고,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교류를 통한 진정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매년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는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와 기업계 인사들에게 훌륭한 교류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개혁 개방의 심화에 따라 중국을 이해하여 중국에 와서 발전하는 외국기업가들 또한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남은 중국의 중부에 있어서 중원(中原) 이라 불립니다. 세계에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중국 소림사와 소림무술에 대해서는 결코 낯설지 않지만 하남성에 대해 이해 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하남성은 중국의 축소판입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며, 9700만 명 인구를 보유한 하남성은 중국 제1의 농업 대성입니다. 중국 GNP는 현재 세계 6위이고 1인당 평균GNP는 73위이며, 하남성 GNP는 전국 5위이며 1인당 평균GNP는 전국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하남성은 중화민족 5천년 문명의 중요 발상지이며, 중국 8대 고도 중 4곳이 하남성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진정으로 중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하남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중이며 하남성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발전 속도가 전국 평균 발전 속도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하남성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제출하였고 하남성은 또한 「중원궐기(中原蹶起)」라는 거시적 목표를 실현하였습니다.

2004년 하남성 GNP는 8,800억원RMB에 달하며 1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평균GNP가 1,000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0,000억원RMB를 돌파할 예정이며 사회와 경제 발전은 빠르고 안정적이며 건강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인민은 근면하고 소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하남성은 세계를 향해 개혁과 개방이라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중국 속담에 ‘중원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많은 기업인들이 중원으로 몰려오고 있으며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이미 28개 기업이 하남성에 진출하였으며 또한 적지 않은 기업이 하남성과 상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하남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 하남성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남성 인민정부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장차 2006년4월12일～14일까지 하남성 정주시에서 「제4회 중국 하남성 국제무역상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 입니다. 상담회에서 하남성은 ‘제11차 5개년 발전계획과 하남성 기간산업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최신 투자협력사업을 발표할 예정 입니다.

이 사업은 장차 외자 이용 영역을 확대할 것이며 또한 국유 기업을 개조하여 경영권을 양도하고 하이테크 신기술 산업의 발전, 현대 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석유가공, 석탄화학공업, 알미늄 공업, 방직업, 기초산업 발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담회를 통해 고속도로, 교량, 전력, 도시난방, 물, 가스, 오수 및 쓰레기 처리 등 기초시설 건설사업도 장차 소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에 한층 더 힘써 더 많은 상업, 무역, 물류, 관광, 금융, 보험, 정보, 자문, 교육과 위생 등 분야의 사업도 대외로 공포할 것입니다.

상담회의 주요 내용은 ’육회(六會), 일전(一展), 2논단’으로 즉 6개 전문 분야의 투자무역상담회를, 투자와 무역 전시와 「2대 중부궐기(中部蹶起)세미나」가 병행 개최됩니다.

이 밖에도 ‘모란꽃축제’가 낙양에서 1년에 1번 열리고 탑하(漯河)에서는 ‘중원식품축제’가 함께 개최됩니다. 이러한 전시컨벤션과 축제의 병행 개최를 통해 광범위한 대외교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약2.000여 명에 가까운 해외 기업인들이 장차 하남성을 방문 하여 하남성내 기업인들과 교류 및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성은 이번 회의에서 정중하게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참가 회원 단체를 하남성에 초청합니다. 하남성에 방문하여 여행업과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시고 공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5 경제개발계획 및 동북아협력 전망」**

산동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장계강(张继刚) 부주임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동북아비즈니스촉진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제통상분과위원회 관련인사 여러분과 경상북도의 간부 및 관련 직원 여러분께서 이번 동북아비즈니스 촉진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나아가 산동성과 동북아지역 각 국 자치단체의 경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기회에 제는 산동성의 「11.5 경제개발 계획 및 동북아협력전망」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0.5계획（2001→2005）」산동경제 발전추세**

**① 산동성 경제의 빠른 발전, 현저한 경제력 증가**

산동성의 GDP는 2002년에 1만억원RMB을, 2004년에는 1.5만억원RMB를 각각 달성하였고 예측하건데 2005년에는 1.8만억원RMB에 달할 것이며 금액으로는 2000년의 1.84배가 될 것입니다.

5년간 평균성장률은 13%정도에 달하며 재정수입은 1000억원RMB를 돌파할 것이며 이는 2000년의 2.19배로 5년간 평균 17%가 성장하였습니다.

EMB000019742af7

**<2001～2005년 산동성 GDP>**

**② 구조조정에 따른 새로운 진전과 산업경제력 증가**

산동성은 대외경제무역 및 하이테크 신기술, 민간경제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예측하건데 2005년 실제로 이용한 외자는 100억 달러로 2000년의 2.6배이며 수출총액은 470억 달러에 달하며 2000년의 3배입니다.

EMB000019742af8

**<2001년～2005년 산동성 실제외자이용액>**

하이테크 신기술산업은 공업 총생산액 비중의 25%에 달하고 년평균 2%씩 상승하고 있으며, 비공유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31.6%에서 48%로 증가하였습니다.

EMB000019742af9

**<2001년～2005년 산동성 수출>**

**③ 지역경제의 협조 발전,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 제고**

예상하건데 2005년 산동성 1인당 주민 평균 수입은 10,570원RMB로 2000년의 1.7배이며, 년평균 11.3%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EMB000019742afa

**<2001년～2005년 1인당 주민평균수입>**

**󰊲 「11 ․5계획」산동성 경제개발 중점 육성분야**

**① 경제발전 종합목표**

최근 산동성에서 제정한 「산동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종합계획요강（초안）」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산동성 GDP는 10%정도 증가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29,000억원RMB에 달할 것이며 1인당 평균 3,800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② 절약형 사회 건설**

에너지 문제는 산동성 경제개발 과정 중 직면한 중요한 문제로, 산동성은 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여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은 년 평균 4.5%로 감소할 것이며，5년 동안 모두 22%가 감소할 것입니다.

**③ 산업구조 조정，경제성장 방식 전환**

제조업 대성(大省)을 건설하고자 기계설비, 화학공업, 식품, 원자재, 전자정보, 가전, 섬유패션 등 6대 기간 산업군을 제정하여 2010년까지 120개 이상 중국 고유 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며 산동성 전체 제조업 생산액은 1만억원RMB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있다. 금융보험, 현대물류, 전시컨벤션 산업, 중개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진흥하여 여행업, 문화, 부동산, 정보 등 신흥 서비스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비즈니스 유통업, 식음료, 교통운수 등 전통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프라시설 확충을 강화하여 생태도시(省)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종합 교통 네트워크 및 에너지와 수리건설을 강화합니다. 생태계 보호 및 녹색 산동성 건설에 매년 5.3억㎡ 의 민둥산 녹화사업을 강화하고 2010년 산림녹화율을 28%까지 달성하고 도시 일인당 평균 8㎡이상의 녹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11.5 경제개발계획 산동성 동북아지역 협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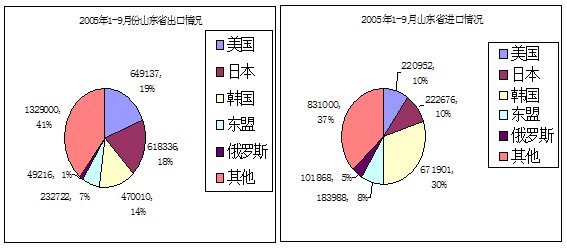
**① 산동성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거대한 협력 잠재력**

동북아지역은 산동성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투자희망국이 집중 위치한 지역이며 노동력 수출 최대 지역이자 산동성 찾는 해외 관광객의 최대 집중지역입니다.

EMB000019742afb

**<2004년 산동성과 동북아지역 수출입 현황>**

2005년 1~9월, 산동성 수출입 통계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북아지역은 산동성 수입 중 약 45%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중 한국에 대한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1%와 20.2%가 증가하였으며 일본 수출입은 각각 3.6%와 21.8%가 증가하였습니다.

<‘05년9월산동성수출현황> <’05년9월 산동성수입현황>

한국과 일본은 각각 산동성의 제1, 제4의 투자국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산동성 투자 총액의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EMB000019742afe

**<2005년 1～9월 산동성 외국기업 투자현황>**

동북아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시장이 거대하고 각 국의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며 산업은 상호보완성이 강합니다. 한국, 일본은 국가 경제 구조조정, 산업이전, 제조고리의 연장 등 산동성의 동북아지역 협력의 양호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고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 거대한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② 산동성과 동북아지역 협력에서 직면한 문제**

동북아지역 자치단체간의 교류의 목적 및 관심 분야가 서로 다릅니다. 산동성을 포함한 몇몇 중국 자치단체들은 더 많은 한국기업이 자기 지역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에 적극 참여해 주길 희망하며 반면 많은 한국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지역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 및 기업제품 영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하이테크 과학기술업체의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교류목적과 관심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쌍방의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심화에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외 자치단체간의 교류에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장기간 수반되는 교류사업이 부족하므로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향후에 반드시 충분한 사전 의사소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계획적으로 교류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정부간에는 장기간의 협력 사업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③ 향후 5년간 산동성의 동북아지역 협력 전망**

산동성은 동북아지역 각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이 개최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지역 교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항후 산동성은 동북아지역 각 국 자치단체와 경제무역, 문화, 과학기술, 관광, 환경보호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하길 기대하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 선진제조업과 물류 등 현대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선진제조업의 대외협력 발전**

산동성은 현재 교동반도에 국제적인 선진 제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10년까지 반도 제조기지의 생산액은 년평균 15%이상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반도제조기지의 GDP는 장차 1만억원RMB를 달성할 것이며 제조업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할 것입니다.

반도제조기지에서 육성하는 중점산업은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전자정보 및 가전제품, 섬유의류, 화학공업, 의약과 식품제조업 등입니다. 반도제조기지 건설사업은 좀더 세분화되어 청도, 연대, 위해에서 각각 산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도는 장차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공업, 선박제조 및 수리 공업, 석유화학공업산업, 전자가전산업을 중점 육성 중입니다.

연대는 기계제조산업, 전자정보산업, 식품 및 황금가공업이 중점 육성산업이며 이를 위해도시 북부 연해에 약 210km의 경제산업 벨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위해는 자신의 전국 최대의 어업 장비, 타이어, 의약용고분자, 목공기계, 카페트 등 생산기지 및 전국 최대의 어업생산 가공기지 등 특성에 근거하여 관련 산업의 제조업 기지와 농산품 수출 가공기지의 건설을 전력 계획 중입니다.

산동성은 동북아 각 지역과의 선진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하며 각 국 기업가들의 산동성 투자를 환영합니다. 산동성은 장차 외국투자자들이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물류, 항구 등 현대서비스업 분야의 협력 강화**

산동성은 현대제조업 대성으로서의 사회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산동성과 동북아지역 및 세계 각 국의 물류, 항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산동성은 연해 항구 및 항공 운수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며, 산동성은 530억원RMB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청도를 기점으로 일조(日照), 연대(烟台)시를 두 축으로 하여 동북아지역 항공운수업 중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도항은 중국 연해지역 중심항구이자 콘테이너 항구로서 에너지, 원재료 운송의 중추지역으로 향후 발전에도 이 항구는 콘테이너 운송의 중심으로서 원유, 철광석, 석탄 등 대량 화물의 중개운송지로 육성하여 동북아지역 국제 항공운송 허브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연대(烟台)항구는 중국 연해 주요항구와 종합물류의 중요 항구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쪽 항구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중점적으로 지하 광물자원, 석탄, 원유, 컨테이너 운송을 집중 육성하여 수억톤의 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현대식 항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지역 국제항공운송 허브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일조(日照)항구는 중국 북방지역의 에너지, 원자재 중요 중계운송 항구이자 콘테이너 중계항구로서 향후 발전에서 석탄, 광산물, 원유 등 대규모 화물 중계운송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등 기타 운송을 겸한 항구의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현대식 종합항구를 건설하여 동북아지역 국제항공 운송 허브의 토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산동성 항구건설과 물류발전은 장차 국내외의 제조메이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며 산동성은 한국과 일본 등 각 국 자치단체와 항구, 물류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2006 경상남도 전시회 개최 계획 소개**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배경용

**󰊱 2006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KOFAS 2006)**

◦ 전시기간 : ‘06. 5. 18(木) ～ 5. 21(日), 4일간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최/주관 : 산업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전시규모 : 200업체, 450부스/ 해외전문바이어 200명

◦ 전시분야 : FA기기, 금속가공기계, 금형․공구, 제어계측기기 등

※ 산업자원부 인증 유망전시회로 21년간 수도권에서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창원컨벤션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지방 순회전시

**󰊲 2006 한국자동차부품전시회(Auto Parts Korea 2006)**

◦ 전시기간 : ‘06. 6. 8(木) ～ 6. 10(土), 3일간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최/주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무역협회/ 서울메쎄

◦ 전시규모 : 100업체, 250부스/ 해외전문바이어 200명

◦ 전시분야 : 자동차 부품류, 정비용품, 카오디오 등

**󰊳 한국국제기계박람회(KIMEX 2006)**

◦ 전시기간 : ‘06. 10. 18(수) ～ 10. 21(土), 4일간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 주최/주관 : 산업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전시규모 : 300업체, 600부스/ 해외전문바이어 300명

◦ 전시분야 : 기계류 전반, IT신기술제품, 건설기계 중장비 등

※ 경남도 대표적인 기계전문박람회로서 8년간 격년으로 개최

문의처 : 1.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산업이벤트팀(☎ 055-211-3341)

2. COEX 창원컨벤션센터사업단(☎ 055-212-1011)

**러시아ㆍ중국간의 특별경제구역 창설 제의**

아무르주 부지사

알렉산더 골디브

존경하는 비즈니스 촉진회의 참석자 여러분!

존경하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대표자 여러분!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아연방 아무르주행정부의 대표로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촉진회의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 의근 경상북도 지사님 이하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의 공동작업이 동북아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관계발전 및 결속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동북아협력의 일환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특별경제구역은 1970년대에부터 창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구역을 창설을 계기로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수많은 특별경제구역의 창설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러시아의 아무르주와 중국의 흑룡강성은 약 1300km 길이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며, 이 국경선에는 3곳의 국경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경사무소 중에서 블라고베쉔스크와-헤이허지방 통과 지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르주 행정부는 이들 두 도시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력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인접국가로서의 선린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상호보완적 역할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양국이 보다 효과적이고 빠른 경제발전 실현을 가능케 해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정부는 아무르강을 지나 블라고베쉔스크와 헤어허 양 도시를 지나 양국 국경선을 통과하는 다리 건설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와 중국간 교통수단의 연계는 지리적 특성의 기반 하에 양국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현재 아무르강을 통과하는 다리 건설의 사전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다리건설 계획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아무르주 행정부는 블라고베쉔스크와 헤이어 양 도시에 국경을 초월하는 특별경제구역 창설 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아무르주와 중국의 흑룡강성은 2005년 6월 17일 하얼빈에서 양국 공동경제구역 창설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정부와 중국정부 간의 특별합의문에서 이와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별경제구역” 창설 규정 및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양국의 경제주최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경제구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한 기업은 러시아, 중국 기업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자치단체(NEAR) 소재 기업 모두가 해당됩니다.

특별경제구역 창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 내에 2개의 특별 폐쇄구역이 설정될 예정입니다. 그중 한 지역이 총 면적이 10㎢의 ‘러시아 지역’으로서 러시아 영토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다른 한 지역은 ‘중국 지역‘으로서 중국 영토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들 양 지역은 아무르강변의 양국간 경계선이 있는 수로를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들 양 지역은 아무르강을 지나는 다리 및 기타 필수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될 예정입니다.

아무르강을 지나는 다리로 연결된 양국 지역은 특별 경제법규가 적용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러시아지역의 30%를 거류민 구역의 산업용지로 할당을 하고, 40%는 통신시설과 생산 서비스 시설로 할당을 하고, 나머지 30%는 농지, 예비지, 휴식지 등으로 할당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경제구역 기능과 관련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법률을, 중국 지역은 중국 법률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경제구역 내에서의 ‘러시아 지역’ 및 ‘중국 지역’은 각각 자국의 사법권에 속하며, 의향서에서 언급된 규범 역시 양국의 법적효력 안에 포함됩니다.

양국은 특별경제구역 내의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별경제구역 내의 기업 구역에 무역, 수송, 건설, 생산 관련 기업, 회사, 단체가 설립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해당지역의 경제주최와 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러시아 영토 내에서의 기업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는 임대 목적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경제구역에서의 건설행위 및 기업의 초기생산 단계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경제구역 효력은 향후 20년간 지속됩니다.

‘러시아 지역‘ 내에 ‘무관세지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무관세 지역이란 일정 지역 내에 외국제품에 대한 반입 및 사용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지역‘ 및 ’중국 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기구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아무르주 행정부는 이와 같은 특별경제지역 창설 시, 동북아국가의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특별경제구역 내에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기업설립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번역시 참고

(1) 국경을 초월하는 특별경제구역 transboundary Special economic zone

(2) 아무르강 river Amyr

(3) 블라고베쉔스크시 Blagoveschensk city

(4) 헤이허시 Heihe city

**이르쿠츠크와 동북아지역의 공동발전전략의 관계**

경제분석 및 예측위원회위원장

니콜스키 알렉세이

이르쿠츠크 지역은 러시아의 중심부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로 가는 상업로의 교차지이며 경제 지리학적으로는 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넓은 이르쿠츠크 지역은 767만 9천개의 아파트와 2661만 7천명의 주민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현제 37개의 도시자치주와 그 안에 14개의 자치도시들로 형성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이 지역은 풍부한 자원으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어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영토들은 많은 산림으로 이루어졌고(78%) 여기에 러시아의 목재자원의 11%가 집중되어있다. 이곳에는 거대한 금 단층, 희귀한 금속들, 철광석 칼슘 식탁용 소금, 색깔있는 돌들, 운모, 마그네사이트 그리고 활석 등이 있다.

모든 종류의 에너지 연료 자원을 채집할 수 있는 러시아의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며 석탄은 러시아의 7%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량의 석유와 가연성 가스, 10%의 수력발전자원 등이 있다. 수력발전자원의 기초는 안가릐와 바이칼로, 서계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폭포 수력발전소를 만들어냈다 (이르쿠츠크, 브랴트 와 우스찌-일리슴까 수력발전소). 영토 중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가스제품의 출산지인 꼬븨이크찐스까 지역이 있으며, 수하로젠스까야에는 금광이 위치하며 사얀스까는 희귀광물이 있는 지역이다. 이르쿠츠크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맑은 물을 가진 호수 바이칼이 있다. 이 지역은 우월한 경쟁적 전략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진다.

이르쿠츠크 지역에는 러시아 산업의 총제적인 부분들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에너지 연료, 목재업, 수역기술, 칼라 야금술의 발전에서 많은 힘을 받았다. 전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계 제작이다. 나라의 34%의 알루미늄생산과 플라스틱의 50%이상, 셀룰로이드 약 30%, 금제품 채집 덕택에 지역의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높은 생산자금의 생산품에 관한 비유의 원인이 되며, 또한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원인이 되었다.

영토는 물류와 상업로의 기초가 되었다. 트란시비리스크와 바이카-아무르지역의 철로이다

이르쿠츠크 지역은 (멈추었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련시절 시베리아의 산업 기초가 집중되었던 곳이다. 동쪽과 북동쪽 지역은 거의 수력발전물품과 알루미늄, 석유정제, 화학, 셀룰로이드-종이 산업의 표준으로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르쿠츠크 지역은 즉 새로운 시대의 동 시베리아와 극동의 혁신적 경제 발전의 기초가 시작되었으며, 지역적으로 기피하는 부분의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한다.

2004년 평가에 따르면 GNP는 70억 6천 달러에 달하고 최근 경제성장의 GNP는 평균3～4%에 이르며 GNP의 구조는 약 35%가 산업, 30%가 물류와 상업, 4.5%가 건축그 리고 5%가 총체적인 농업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쿠츠크 지역은 위험이 수반되는 농업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농업은 이르쿠츠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전하게 양식의 생활보장을 받게 되면 주민들은 일할려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투자자를 기다린다. 이 지역의 발전은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극동-야쿠츠지역의 원래의 기능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전략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GNP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이다. 현재 내부의 주인들의 분열과 관계하여 지역생산품과 기초산업 생산품이 수출로 공급되어진다. 이르쿠츠크 지역의 수출 표준에 따르면 2004년 산업 생산품이 68.8%를 차지했다. 수출에 알루미늄이 80.5% 셀룰로이드가 75%이상 방공방독가스가 33% 목재가 88.9% 원목이 48%등이며, 거의 3개의 가솔린 연료와 중유가 40%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지역의 대외 경제 파트너로는 중국, 일본, 한국, 몽골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다.

이르쿠츠크 지역의 노동력은 높은 고등교육에 관계하는 성향을 보인다. 경제적인 일의 부분에서 고등 혹은 조금 모자란 고등교육이 23.6%이고 중등과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이 45.6%이다. 이것에 따르면 고등교육과 함께 분야의 성장을 기록한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주민 중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부터 실업자는 2.5%이며 실제적으로는 실업자가 경제위기의 시기에 일자리의 감소로 최저 사람들의 수는 200만 정도에 이른다. 이것에 관계하여 지역은 발전을 이용하여 외국인 참여자와 막대한 노동이 필요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생필품을 생산하고 생활물품과 고기술 경공업과 식료품산업 건축 공업 주민의 기계제작과 공작기계 생산을 해야 한다.

이르쿠츠크의 경제적인 부분은 점진적으로 1990년대 위기의 경향으로부터 발전하여 극복했으며, 2004년도에 지역산업의 생산물의 수준이 1990년의 68.6%,그리고 1998년의 47%에 다다른다.

90년대의 가장 혁신적인 위기의 영향으로 완제품에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을 제시했다. 기계제작의 크기와 금속가공은 30% 낮아졌고 식료품산업은 2배가량 감소했으며, 경공업과 건축재료 사업은 20배가량 줄어들었다.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은 원료의 수출과 반 가공품등의 낮은 수준을 목적으로 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칼라 야금술은 거친 알루미늄재품이 1990년 성장한 것과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이르쿠츠크지역의 기초적인 성장은 발전부분과 완제품으로 나누어야만 한다.

발전 전략 방향의 영역은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과 시베리아지역의 발전전략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시베리아의 전략 : 파트너의 영역과 일 이른바 특별한 안정과 성장의 불변성이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공동의 주제로 뭉친 시베리아 연방의 인근 지역의 속해 있으며 비즈니스를 제시하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기관이다.

시베리아의 발전의 기초전략은 필요한 원료의 보장과 유럽중심국가의 반가공품들이며 지역의 만족하는 혁신적인 성격의 경제이고 주민의 높은 수준의 삶과 생활을 안락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에 의해서 반드시 점진적으로 시베리아의주민의 수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삶의 질과 실제적인 봉급수준이 발전하여나간다.

시베리아의 과업은 다음에 기초하여 보여진다.

- 시베리아 연방과 주변의 GNP가 2013-2015년까지 적어도 2배 이상의 성장.

- GNP안에서 고기술 분야의 확대와 수입물품의 규제.

- 실제적인 주민의 봉급이 2010까지 적어도 1.5배이상 증가.

이것에 관하여 중요한 문제 혹은 이 과업을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을 인정하고 시베리아 경제의 특권을 가진 목표점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공 원료의 수출과 지역으로부터의 자본로를 확장 조성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기적전망은 이르쿠츠크 지역과 시베리아 지역의 목표를 가지고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며 원료의 반출과 반가공품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완제품은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것의 범위는 국민 생필품 경공업, 식료품업, 목재품, 기계제작산업, 건축재료 산업과 건축, 흑색 야금술과 농업이다.

이것들은 영역이 작거나, 중간정도의 권위와 연관되어 있고, 거대한 비즈니스와도 연관되며, 점진적인 주의와 금융기관의 협조를 가지게 될 것이고 다른 측면으로 지역적인 범위,189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의 지역경제 수준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세웠다.

200만이나 그 이상의 일자리 창조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지역의 실제적인 수준과 실업자의 수가 일치한다.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이르쿠츠크의 목재산업은 좋은 잠재력 으로 유명하고 오래된 가공술과 가구 생산품 그리고 완제품의 생산을 투자자들은 필요로 한다.

외국 투자자들의 생산품의 범위는 고기술과 생활물품과 지역적인 원료로부터 국민생필품과 옷, 신발, 식료품 등보다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가능한 내부요청은 여기서 생활보장과 질 좋은 제품과 비싼 생필품을 대신 받는 것으로 전체 몇십억 달러로 평가되어진다.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이르쿠츠크 지역의 건축 재료 산업은 거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생산품의 크기는 여기서 1990년 수준으로부터 15%보다 더 높지 않게 책정된다.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은 외국 투자자의 건축공업과 지역을 원료로부터 많은 건축생산품들이 주민들의 건축에 사용을 기대한다. 현재 건축 재료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양을 공급해 오고 있으며 건축물의 값을 올린다. 처음에 건축 공업 지역에 도착한 외국 투자자들은 많은 특권을 부여 받았다.

시베리아와 이르쿠츠크 지역의 창조된 업무는 자립 경제와 혁신적인 성격의 경제이고 시베리아의 정리되어진 발전과 기계제조 부문과 하부구조 지역에는 새로운 단계의 투자자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붙는다. 기계제작과 하부구조는 지역의 흑백야금술의 기반의 창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현재 극동과 동시베리아 지역에는 완전한 사이클의 흑백 야금술이 존재한다. 흑백 야금술의 고품질의 창조는 치네이스끼의 거대한 광석지역과 바이칼-아무르의 철로와 이르쿠츠크 지역의 가연성 가스와 수력전기를 기초로 하여 가능하여졌다.

비록 흑백 야금술의 발전은 계획으로 불릴지라도 아직 구체적인 도안을 받지 않았고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획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의 철도, 교통, 송유관 생활을 보장하는 기계제작을 위한 고품질의 흑백 야금술의 창조는 이르쿠츠크와 중국의 완전한 협력으로 가능해진다.